

경찰 긴급체포 남발...광주 3명중 1명 석방

전남은 29%...시민 인권침해·수사력 부재 도마위에

광주·전남 경찰이 '일단 잡고보자'며 긴급체포 제도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의 경우 긴급체포한 인원 3명 중 1명꼴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했거나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서울 강북을) 의원이 경

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총 51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 중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한 인원이 115명에 이르고, 영장이 청구된 사람 중 기각된 인원은 64명에 달했다. 결국 긴급체포 한 뒤 석방한 비율이 34.9%로, 3명 중 1명이 풀이었다.

전남경찰도 같은 기간 총 909명을 긴급체포해 이 중 165명은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했고, 97명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석방비율이 28.8%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석방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무고한 시민의 인권침해 소지는 물론 경찰의 수사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 의원은 전남경찰의 경우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 긴급체포 뒤 석방된 인원이

51%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체포 대상자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고, 동시에 경찰의 수사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48시간 동안 체포 상태로 가둬두는 등 심각한 인격 침해 소지가 있다"며 "영장없이 인신을 처분하는 긴급체포 제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덕초 앞 '옐로카펫' 설치 (사)광주학교(교장 송갑석)가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6일 광주시 서구 유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옐로카펫은 등·하교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국단위 캠페인이다. /나영욱기자 mjna@kwangju.co.kr

세월호 절단 작업중 폭발...잠수사 부상

세월호 인양 준비 작업을 하던 중국인 잠수사가 산소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6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께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중국 인양 용역업체 상하이셀비지 소속 잠수사 리모(43)씨가 세월호 뱃머리 쪽 프로펠러 절단작업 중 폭발사고를 당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수중작업을 하

던 리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지만 함께 있던 동료가 곧장 물 밖으로 끌어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리씨는 상하이셀비지 소속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잠수 갑압 체임버'에서 갑압치료를 받은 뒤 육지로 옮겨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리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세월호 진도 어업인 배·보상 624건 신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도 어업인들의 피해 배상 및 보상 신청이 모두 624건 접수됐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피해 배·보상 신청은 유류 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이다.

신청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

라 지난 3월29일 시작했다.

진도군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매달 2차례 열리는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374건을 심의해 245건, 15억8400만원을 보상했다. 해수부는 나머지 피해 신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심의·의결해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전남대·순천대생 문학 많이 읽는다

국립대 도서 대출 현황 보니...광주교육대는 교과서

올 해 광주·전남 대학생들은 어떤 책을 많이 찾았을까.

세정지민주연합 유기홍(서울 관악 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넘겨받아 공개한 '2015년 1학기 국립대 도서관 대출 현황'을 들여다보면 지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책을 짐작할 수 있다.

전남대의 경우 '대출 상위 도서 30위'를 '문학' 장르가 휩쓸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2위·41회), '정글만리'(5위·35회), '가면 산장 살인사건'(13위·19회), '싸드'(15위·19회) 등이 순위에 포함됐다. 특히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와 프랑수아 작가 기욤 뫼소의 '편식' 현상이 두드러졌다. 30위권 안에 기욤 뫼소의 작품 '종이 여자'(7위·29회), '내일'(8위·28회), '센트럴 파크'(10위·24회), '7년 후'(26위·17회) 등 4개가 올랐다.

올 해 전남대 대출 1위 도서는 의대 핵의학 과목의 전공 교재 '핵의학'(고창순 저·49회)이다. 학과 전공 교재가 가장 많이 빌려본 도서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순천대에서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1위·109회), '센트럴 파크'(5위·68회), '7년의 밤'(30위·21회) 등이 학생들의 인기 도서로 꼽혔다. '해커스토피 보카', '해커스토피의 실전 1000제' 등도 빌려보는 학생들로 인해 순위권에 들었다.

광주교육대는 30위권 대출 도서가 모두 교과서·지도서였고 목포대는 대학역사만화 조선왕조실록(45회)이 2위에 올랐고 정글만리(4위), 김진명의 고구려(7위), E.L. 제임스의 로맨스 소설 '50가지 그림자'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목포해양대의 1위 대출 도서는 미생(63회)으로 파악됐다. /김지욱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1 해질 18:09
 맑음 01:10 맑음 14:58

일교차 커요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4/26 보성 맑음 10/25
 목포 맑음 15/24 순천 맑음 14/27
 여수 맑음 17/23 영광 맑음 10/26
 나주 맑음 10/26 진도 맑음 11/26
 완도 맑음 14/25 전주 구름많음 12/25
 구례 맑음 10/27 군산 구름많음 12/26
 강진 맑음 10/26 남원 구름많음 8/26
 해남 맑음 10/26 흑산도 맑음 16/22
 장성 맑음 9/25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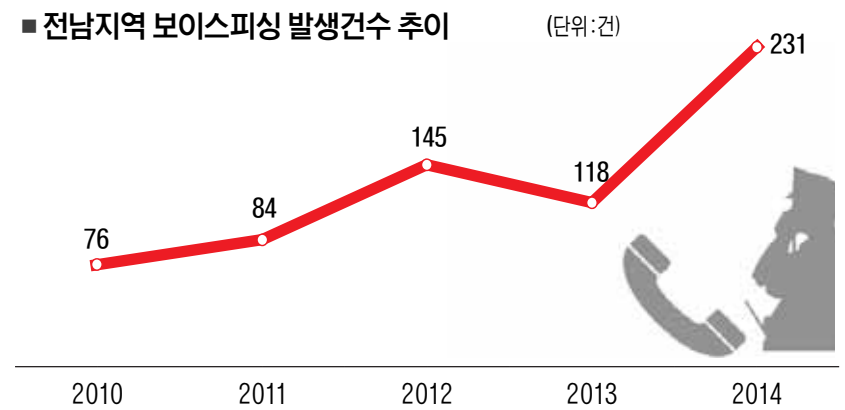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50
 빨래 90

◇주간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	☀	☁	☀	☀	☀	☀
15/25	14/21	11/19	11/20	11/21	11/22	10/23

'전남 노인' 보이스피싱 표적

지난해 231건 5년새 3배 늘어...검거율은 절반 톱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발생·검거·피해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0년 76건에서 2011년 84건, 2012년 145건, 2013년 118건, 2014년 231건으로 5년새 3배가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40%보다 5배나 높은 수치다.

반면 검거율은 2010년 51%에서 2011년 61.9%, 2012년 29.7%, 2013년 3.4%, 2014년 21.2%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인구 190만578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38만3808명으로, 20.14%에 달해 전국 평균 12.70%보다도 훨씬 높다.

박남춘 의원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불멸의명량! 조국의울돌목!

2015 The Great Battle of Myeongnyang Festival

2015 명량대첩축제

2015. 10.9 금 ~ 10.11 일 3일간
해남우수영 울돌목 일원

안철성께!! 편안성께!! 빠르게!!

유럽형 쾌속선 퀸스타호 **카훼리 여객선 뉴드림호**

해남우수영 ↔ 추자도 ↔ 제주도 해남우수영 ↔ 흑산도

우수영(출발)	추자도(경유)	제주(도착)	운행횟수·소요시간
08:00	09:30~10:00	11:00	1일 1회
제주(출발)	추자도(경유)	우수영(도착)	3시간
11:40	12:40~13:10	14:40	

가는편	출발	도착	운행횟수·소요시간
	06:00	09:30	1일 1회
오는편	출발	도착	3시간 30분
	14:30	18:00	

취항! 해남 ↔ 제주도 ↔ 흑산도